

영화 '그대안의 블루' 여성계 "남성중심 여성관" 혹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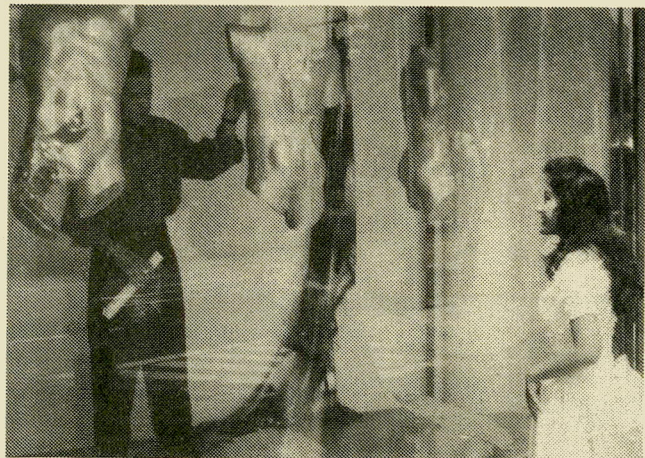
일과 사랑 맞세우기 어설픈 '페미니즘'

남성감독이 만든 여성문제 영화 <그대 안의 블루>가 정작 여성계로부터 혹평을 받고 있다. 이 영화는 충무로 영화계에서 전례없이 여성문제쪽으로 전공을 잡은 '페미니스트' 영화감독 이현승씨의 첫 작품이어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여성문제 인식에 대한 여성계의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그대 안의 블루>는 개봉관에서 17만 관객을 동원하고, 지금 소극장체인에 들어갔다. 겨울철에 개봉한 한국영화 3편 가운데 유일하게 흥행에 성공한 셈이다. 이 영화의 흥행은 우선 두 배우 안성기와 강수연의 위력,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만만치 않은 눈요깃거리를 제공하는 영화화면의 효과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 영화가 여성의 일과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고, 바로 그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 여성이 한국영화 관객의 주력을 구성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대 안의 블루>에 대한 여성계의 비판은 "이 영화가 여성문제를 일과 사랑의 이분법으로 보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남성이 이해하는 여성문제의 관념성"이라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 감독이 보여주는 영화감독의 새로움에 대한 영화계 안쪽의 우호적인 평가와 대조적이다.

계간 <창작과 비평> 봄호에 실린 '한국영화의 새로운 흐름-신세대의 결혼과 일'이라는 글에서 여성문화평론가 김영혜씨는 이 영화에 대해 "감각적으로 잘 짜인 화면이 빈약한 주제의식 때문에 이내 공허해지고 만다"고 썼다. "사람이 여성에게 억압적 요소, 전문적인 직업인이 되



는 데 방해가 될 뿐이라는 주인공 호석"이나 사랑을 위해 일을 버렸다가 다시 일을 위해 사랑을 버리는 유림의 양자택일식 문제제기는 "산뜻할진 몰라도 대단히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 영화를 토론 주제로 삼았던 지난 1월 서울 기독교청년회(YMCA) 시민영화마당에서 여성학자 오숙희씨는 "일과 사랑을 선택의 문제로만 여기는 이분법"보다는 "일이 왜 필요한지, 인간적인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여성의 자아와 관련지어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대 안의 블루>가 요즘 한국 사회 여성문제의 아주 중요한 현상이 된 '슈퍼우먼신드롬'을 다뤘다고 본 이승정(서울 YMCA 간사)씨는 이 영화의 현실성에 대해 다소 점수를 준 경우다. 그는 월간 <사회평론> 2월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이 주체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거의 전적으로 남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에서 아직도 작가가 남성중심적인 세계관

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본다"고 지적했다.

월간 <말> 2월호에 영화평을 쓴 서울영상집단의 남인영씨는 이 영화에서 "감독은 사랑의 이데올로기와 가정에 대한 환상을 깬 뒤 자신의 삶을 곧추세우는 과정을 그리려 했겠지만 주인공 유림의 '자아실현' 방법은 눈에 띄지 않고 그의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남자의 역할이 강조돼" 오히려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도 여성문제를 다루겠다는 감독의 진지한 시도 자체는 높이 사고 있다.

이현승 감독은 "우리 영화들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묘사되는 여성상에서 탈피한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적어도 이런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영화계는 "보다 본격적인 페미니즘 영화를 만들어보겠다"는 이현승 감독의 다음 작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선희 기자